

水産物 貿易 構造變化에 관한 一考察

— 水産資本 再編成의 現段階의 性格을 中心으로 —

장영수* · 이승래**

A Study on the Change of Fisheries Trade Structure — Current State of Capital Reformation in Fishery —

Jang, Young-Soo and Lee, Seung-Rae

目 次	
I. 問題意識	1. 輸出停滯와 輸入增加
II. 水産物貿易展開過程의 特質	2. 加工品輸出原料로서 輸入擴大의 特質
1. 水産物輸出擴大의 特性	3. 水産資本再編의 諸形態
2. 遠洋漁業에서의 資本蓄積過程과 輸出擴大	IV. 現段階에 있어 水産物輸出構造의 性格과 展望
III. 水産物輸出入構造의 變化	

I. 問題意識

水産物과 같은 1次產品에 있어서의 國際貿易의 特徵은 一般製造品과는 달리 勞動對象의 存在 그 自體가 「資源依存型」의 性格이 강하고, 이것을 基礎로 貿易이 行해져 왔다. 그 까닭에 輸出國에 있어서의 水産資源存在는 2國間 貿易에는 不可缺한 要素임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水産物貿易特性에 있어 韓國水産物貿易 역시 기본적인 성격을 같이 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韓國의 水産物輸出은 1988년의 약 20억달러를 최고로 그 후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韓國水産物輸出은 주로 「自國水産資源抽出中心型輸出」의 性格이었고, 또 遠洋으로의 外延的 擴張을 도모한 「比較生産優位의 輸出」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遠洋漁場의 縮小, 沿近海 水産資源의 枯渴, 國內勞動市場의 構造變化 그리고 國內消費構造와 國際貿易環境의 變化 등 중래의 水産物貿易構造는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外延的

* 일본동경수산대학 수산경제정책연구실 박사과정
** 부산수산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원경제학과 교수

漁場擴大와 自國水産資源을 기초로한 韓國의 水産物輸出政策(外貨獲得論理)은 輸出規模의 減少와 關聯資本活動의 縮小라는 現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모순이 表面化되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에 있어 기존의 水産資本의 움직임에 注目하는 것은 現段階의 水産物貿易 性格規定과 금후의 새로운 水産物貿易構造形成을 살펴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상과 같은 問題意識에서 다음과 같은 課題에 關係 考察을 하고자 한다.

① 韓國의 水産貿易을 둘러싼 環境變化에 따라 從來의 水産物輸出構造는 어떻게 變化해 왔는가.

② 水産物輸出構造의 變化中에 水産資本은 어떻게 對應하면서 成長해 왔는가, 또 金후 어떠한 對應을 할려고 하고 있는가.

③ 水産資本의 對應은 현재 水産物貿易構造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水産物貿易의 展開過程에 어떠한 役割과 性格을 가지고 있는가.

本稿에서는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韓國水産資本의 類型化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水産物貿易構造의 一側面을 探索하고자 한다. 또 새로운 水産物貿易構造의 成立要因과 그 展望에 關係 水産物生産構造와의 關聯下에 현재의 水産物貿易構造의 現段階의 性格과 앞으로의 展望에 關係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本稿는 韓國水産物輸出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日本과의 關係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水産物貿易展開過程의 特質

1. 水産物輸出擴大의 特性

水産物貿易 展開過程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히 水産業의 成長過程을 살펴보면 그것이 水産物輸出과 어떠한 關係를 지니왔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韓國에 있어 漁業展開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6·25사변 以後 1950年代 末期 以後이며, 1960년대부터 1970年代에 걸친 정부의 적극적인 漁業振興策 등에 의해 급속히 발전해 왔다.¹⁾ 이것을 간략히 살펴보면 정부는 지금까지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一環으로 5次에 걸친 水産振興5開年計劃으로 水産振興을 도모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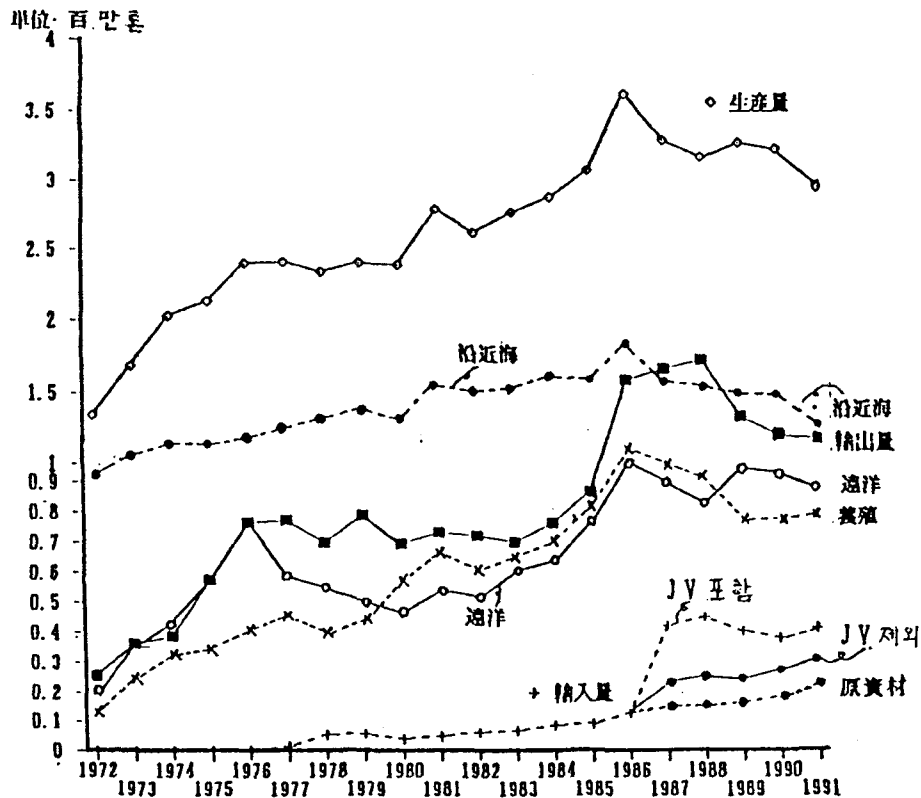
특히 1967년에 시작된 第2次計劃에서는 遠洋참치漁業의 育成을 기조로 한 적극적인 水産振興策을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水産振興策은 沿岸漁業보다 오히려 遠洋漁業에 重點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韓國經濟開發에 필요한 外貨獲得의 急務性에 遠洋漁業이 손쉽고 短期에 外貨獲得이 가능한 輸出産業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振興策을 배경으로 1960年代 中盤부터 漁業生産은 점차적인 擴大를 보였다. 그리고 1960年代 後半에 들어와 中古船導入과 商業借款의 제공 등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참치

1) 韓國水産業의 展開科程을 설명하고 있는 文獻 중 특히 水友會「現代 韓國 水産史」, 고려서적 주식회사, 1987을 참조바람.

獨航船漁業과 遠洋트롤漁業 등 새로운 遠洋漁業의 展開가 進行되는 등 新興遠洋漁業國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遠洋漁業重視政策에 따라 뒤떨어졌던 沿近海漁業도 1970年代에 들어와 漁業基盤의 整備, 漁船의 擴充·近代化 등의 振興에 따라 生産物은 增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成長政策에 힘입어 總生産量은 1972년에는 100만톤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1986년에는 최고 360만톤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0年代부터 水産物의 生産量은 沿近海, 遠洋, 養殖과 함께 增加해 오다가 1986年以後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水産物輸出量의 增加도 1988년을 최고로 그 以後에는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한편 輸出量과 遠洋, 養殖의 3部門의 움직임만을 보았을 때 200해리 前後 2~3년간의 遠洋漁業의 저하를 제외하면 이들 3部門의 움직임은 1986년까지 거의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이상과 같은 水産物輸出의 伸長은 遠洋漁業의 育成·成長과 沿近海漁業 특히 養殖業의 成長과 함께 해 왔으며, 水産業 自體가 輸出産業의 役割을 일부 담당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86년까지의 韓國水産物輸出은 기본적으로 遠洋과 養殖 등의 소위 「資源依存型」性格의 特質을 지니고 있음에 注目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 水産物 生産量과 輸出入 推移
 資料: 各年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에서 작성.

2. 遠洋漁業에서의 資本蓄積過程과 輸出擴大

水産物輸出擴大要因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온 것은 참치漁業을 중심으로 한 遠洋漁業의 成長일 것이다.²⁾ 특히 우리나라의 遠洋참치漁業은 外貨獲得을 목적으로 1950年代 末期부터 振興·育成되었다. 遠洋참치漁業은 주지한 바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통조림原料用 輸出市場을 대상으로 한 基地船 漁業³⁾, 다른 하나는 日本의 刺身참치用 輸出市場을 대상으로 한 獨航船 漁業으로 구성되어 있다. 前者는 1957년 인도양 참치연승시험조업으로 시작된 以後 1960年代부터 1970年代 前半에 걸쳐 量的 成長 일변도의 基地船에 따른 참치漁業이다. 後者는 1968년 참치漁業에 새로운 방식의 漁業이 시작되어 인도양에 참치獨航연승漁船이 출어한 것을 표시로 하여 1970年代 中盤부터 遠洋참치漁業 발전에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獨航船이 주도적인 참치漁業이 되었다. <표 1>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1976년에 참치漁船 總隻數中에 獨航船이 차지하는 比率(B/A%)이 37.2%에서 1982년에는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우기 1988년에는 67.7%를 차지하고 있으나 漁船隻數는 減少하게 된다. 이것은 1978년 以後의 200해리 특히 UN海洋法條約(1982년)에 名文化되어 있던 剩餘配分原則·實績尊重主義가 空文化되면서 各國EEZ(排他的 經濟水域)내의 外國船 排除政策이 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遠洋漁業의 生産量은 전반적인 增加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水産物輸出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注目하고 싶은 것은 이상과 같은 外貨獲得産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遠洋참치漁業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關聯業體의 資本蓄積過程과 輸出擴大를 중점적으로

<표 1> 年度別 業種別 참치 漁船隻數 推移

年度別	참치漁船 總隻數(A)	獨航船 (B)	基地船	참치 旋網	가다랭이 채낚기	참치 流刺網	B/A(%)
1976	530	197	304	—	29	—	37.2
1977	539	214	287	—	38	—	39.7
1978	521	216	266	—	39	—	41.5
1979	489	217	234	—	38	—	44.4
1980	474	219	220	2	33	—	46.2
1981	430	208	199	3	20	—	48.4
1982	350	185	141	10	14	—	52.9
1983	290	169	101	11	9	—	58.3
1984	238	156	69	12	1	—	65.5
1985	232	157	64	11	—	—	67.7
1986	242	167	61	14	—	—	69.0
1987	270	189	60	20	—	1	70.0
1988	293	199	69	23	—	2	67.7

資料：韓國遠洋漁業協會

2) 韓國遠洋漁業協會「韓國遠洋漁業30年史」고려서적주식회사, 1990 12 참조.

3) 물론 현재 韓國의 참치통조림 消費市場은 크게 成長되어 그 原料自體도 부족할 정도로 擴大成長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輸出擴大라는 側面에서 보고자 하며 시대역시 1960년대~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 基地船漁業임을 밝혀둔다.

로 檢討하고자 한다.

遠洋참치漁業의 급속한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정부의 漁業振興策, 당시의 勞動力市場條件의 優位性 그리고 外資導入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外資導入에 따른 遠洋참치漁業의 成長과 輸出擴大過程을 통한 資本蓄積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간략히 시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第1의 創設期로서 미국의 對韓經濟援助資金에 따른 船舶導入期.

第2期로서는 1960年代 前半에 있어 이태리로부터 民間借款의 供與에 따른 漁船, 冷凍設備 導入(4,300만달러, 91척).

第3期는 韓·日條約에 의한 日本으로 부터의 新銳船導入(6,000만달러, 50척).

第4期는 1960年代 後半부터 1970年代 前半에 걸친 日本商社의 短期商業借款에 따른 日本中古漁船의 大量導入(300척 전후).

第5期는 1970年代 後半以後 長期商業借款에 의한 急速冷凍機搭載의 新銳大型船의 導入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① 1960年代 後半부터 1970年代 前半에 걸쳐 행해졌던 日本商社에 따른 短期商業借款의 公여시기, 1970年代에 들어서 사시미(刺身) 참치 市場에의 본격적인 참가를 시작하게 된 獨航式에의 轉換期에 있어서의 水産資本의 展開過程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1960年代 後半부터 1970年代 前半의 참치基地船漁業 短期借款供與, 中古船導入背景에는 당시 日本遠洋참치漁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技術開發에 따른 市場對應으로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말해 1960年代 後半 日本遠洋참치漁業은 急速冷凍機에 의한 保存法이 개발됨으로써 漁獲物의 高品質化, 長期保存化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日本의 참치업계도 市場對應을 통조림 原料市場에서 高價格 實現이 가능한 刺身 市場으로의 전환이 촉진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勞動力不足 등에 따른 費用上昇으로 經營惡化에 시달렸던 遠洋漁業者들은 일제히 刺身市場으로의 전환을 서둘렀고, 急速凍結機搭載의 新銳大型漁船建造붐을 초래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와같은 新銳船導入붐은 대량의 中古船을 발생시키게 되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日本商社는 이러한 新銳船 販賣를 촉진시키기 위해 新銳船 代금의 일부로 인수한 中古船의 처분방법으로서 韓國, 대만 등에서의 輸出에 注目하게 되었던 것이다. 日本이 빠지기 시작한 美國의 통조림原料市場은 遠洋참치漁業育成·強化를 이룩하려는 韓國과 대만에 의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兩國의 輸出참치가 통조림 原料用이었기 때문에 超低溫保存施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과 漁獲量增大를 위한 漁船의 數의 擴大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1970年代 初盤에는 日本으로부터의 中古船導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日本商社는 그들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韓國의 참치船主, 遠洋참치漁業에

新規參與를 희망하던 관계기업에 短期商業借款을 供與해 주었다. 또 資金의 返濟를 漁獲物로 대신하는 “現物辨濟方式”이 취해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日本으로부터의 中古船導入은 1974년 까지 계속되어 그동안 韓國에 導入한 中古참치船은 300척 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앞의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76년의 참치漁船隻數는 총 530척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 基地船이 304척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日本에서 導入한 船齡이 10년 이상된 中古船이었음을 <표 2>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참치基地船은 1976년 以後로 減少趨勢를 나타내면서 특히 16년 이상의 船齡漁船의 누적은 1981년까지의 152척을 최고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2> 年度別 船齡別 噸級別 참치基地船 現況

年 度	船 齡				計	總 噸 數				
	1~5	6~10	11~15	16年以上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1,000
1976	4	54	227	19	304	105	148	46	5	—
1977	4	24	206	53	287	96	152	38	—	1
1978	7	11	134	114	266	83	145	37	—	1
1979	—	10	92	132	234	60	137	35	1	1
1980	—	8	73	139	220	58	125	35	1	1
1981	—	7	40	152	199	54	113	30	2	—
1982	—	6	12	123	141	24	88	28	1	—
1983	—	5	4	92	101	11	63	26	1	—
1984	—	3	8	58	69	11	37	19	2	—
1985	—	—	5	59	64	—	37	23	4	—
1986	—	—	10	51	61	8	34	19	—	—
1987	—	—	13	47	60	10	29	19	2	—

資料：遠洋漁業協會，遠洋漁業統計

2) 1970年代 以後의 참치 獨航船漁船은 1973년의 제1차 석유과동과 日本참치業界의 對美輸出不振 등으로 日本참치業界는 韓國으로부터의 참치輸入規制를 美國에 요구하는 한편 참치中古船의 輸出에 대해서도 심한 규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의 대규모 참치漁業者 중에서는 지금까지의 통조림原料輸出에서 日本國內의 刺身市場으로의 輸出市場轉換을 지향하는 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急速凍結機가 내장된 新銳참치船導入에 대한 요구도 점점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70年代 以後 日本은 高度成長期를 지나면서 水産物의 消費에도 質的 變化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選擇的 消費를 중심으로 하는 水産物消費變化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와같은 環境變化에 日本商社도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刺身참치市場에의 流通參與을 본격화하는 한편 韓國으로부터의 참치輸入을 증시하게 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日本商社는 新銳船의 韓國輸出을 도모하게 되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파나마 便宜置籍船方式이다.

이는 日本商社가 韓國의 船主로부터 注文을 받아 日本國內에서 建造하여 그것을 파나마의

4) 日本의 水産物消費構造에 관한 문헌중 秋谷重男「食生活變遷のベクトル」農山漁村文化協會 1988과 小野征一郎「起死海生」日本經濟評論社, 1990, 長合川外「新海洋時代の 漁業」農山漁村文化協會, 1988, p 69-107참조.

日本商社 現地法人에 매각한 후 그 現地法人이 韓國의 船主에 長期商業借款을 供與하는 방식이다.

資金返濟는 앞의 中古船 경우와 마찬가지로 現物辨濟方式을 취하고 있다. 다시말해 借款이 완료될 때까지는 日本商社(現地法人)에 의한 傭船形式을 취하고 있고, 完濟한 단계에 船籍을 파나마에서 韓國에 옮겨가 실질적인 船主가 되는 것이다. <표 3>은 船齡別 참치獨航船의 隻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年度別 船齡別 참치 獨航船 隻數 (單位:隻)

年度別	合 計	1~5年	6~10年	11~15年	16~20年	21年 以上
1976	197	103	34	57	- 3 -	
1977	214	116	18	74	- 6 -	
1978	216	105	45	49	- 17 -	
1979	217	54	104	35	- 24 -	
1980	219	38	113	44	- 24 -	
1981	208	47	106	30	- 25 -	
1982	185	44	102	12	24	3
1983	169	48	94	11	13	3
1984	156	28	88	27	10	3
1985	157	20	48	75	11	3
1986	167	16	44	97	7	3
1987	189	38	44	101	6	-
1988	199	56	33	101	7	2

註: 1976~1981年의 船齡 16~20年의 隻數는 船齡 16年以上의 隻數임.
資料: 韓國遠洋漁業協會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中古船을 중심으로 한 참치基地船과 달리 참치獨航船은 1976년 以後 3년간은 船齡이 5년이하의 新造船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獨航船導入 背景의 一側面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1978년만해도 참치獨航船 총 216척중 5년이하의 漁船이 105척(48.6%), 6~10년 漁船이 45척(20.8%)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79년 以後부터 1986년까지는 新造船의 新規增隻은 별로 없이 기존 獨航船을 그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自然히 高齡化되어 갔다. 1986년을 보면 총167隻 중 5년이하 漁船은 16隻(9.6%), 6~10년도 44隻(23.6%)에 머물고 있으나, 1987년 이후 참치獨航漁業이 호전되면서 新造船은 증가하게 된다. <표 4>는 1976년에서 1980년 당시의 한국 참치 獨航船의 財源別 隻數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6년의 독항선 197隻중 自己資金에 의해 獨航船을 소유하게 된 隻數는 불과 15隻으로 0.5%에 지나지 않고 있다. 財源의 主가 傭船, 外貨貸付, 借款 등의 外資導入에 의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1976년 이후에는 自己資金에 의한 獨航船導入比率은 全面的인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은 約 15%정도까지 늘어나면서, 傭船 등의 外資導入에 의한 獨航船의 隻數 역시 증가하는 擴大基調下에서, 성장발전에 의해 발생하는 資本을 점차적으로 國內에 蓄積하게 된다.

<표 4> 年度別 財源別 참치 獨航船 隻數(1976~1980年) (單位:隻)

年度別	合 計	自己資金	備 船	外貨貸付	借 款	協力資金	機工資金	經 特
1976	197	15	88	47	36	6	—	5
1977	214	21	88	53	40	6	—	6
1978	216	37	81	43	40	9	6	—
1979	217	24	101	39	39	8	6	—
1980	219	33	101	36	36	7	6	—

資料: 韓國遠洋漁業協會

3) 참치漁業經營體의 特徵과 成長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로 外資導入에 의해 확대되어 온 遠洋참치漁業은 輸出志向化에 힘입어, 적극적인 返濟를 통한 성장확대를 이룩하게 된다. 이들 업체들 중 특히 참치 獨航船의 輸出實積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遠洋참치漁業(獨航船)은 1970년 이후 급속한 成長發展을 이룩하여 왔으나, 1978년 제2차 석유파동과 독항선을 둘러싼 經營諸環境이 급격히 악화되어 구조적인 불황관(不況觀)이 만성된 시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참치 魚價騰貴傾向과 圓高 市場條件 등의 好轉으로 成長擴大를 계속해 온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 <표 5>는 연도별 참치 獨航船 輸出實積과 그 대표적인 회사의 輸出實積을 살펴 본 것이다. 참치 獨航船에 의한 총수출은 물량, 금액 전부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日本刺身市場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에 단가 역시 高水準으로 유지·확대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大林水産, 東遠産業, 東源水産, 思潮産業, 五洋水産 등으로 한국 참치독항선어업의 先導的 位置를 차지하면서 수산물 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경영체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로, 경영형태는 회사조직에 의한 多船經營(평균 6隻이상, 20隻이상도 상당수 있다)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1~2隻경영이 일반적이고, 소규모이다. 둘째로, 참치어업경영이외에도 遠洋트롤(南方, 北洋)과 遠洋오징어漁業, 遠洋선망漁業 등을 겸업하고 있으며, 冷藏庫, 水産加工 등도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들 어업회사 대부분이 「輸出志向成長과 擴大」를 해 왔다는 점이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게 되겠지만, 이상과 같은 外資導入을 통한 擴張主義的 經營運營의 試圖, 또한 이와함께 달성할 수 있었던 성장에 힘입어 投資資源을 蓄積하면서, 그 결과 외자자본의 의존도를 축소시켜 나가게 된다.

결국 이와같은 과정속에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의미에서 나중 國內資本의 自立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측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대표적인 예로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참치獨航式 漁業을 開拓한 高麗遠洋의 조업중지와 大皓遠洋 등의 조업중단등은 그 실례라고도 할 수 있다.

水產物貿易構造變化에 관한 一考察

<丑 5> 年度別 참치 獨航船 輸出 實績 (單位：%, 千US\$)

會社名	年度區分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高麗遠洋	物量	8,696	2,090	3,257	177	640	-	-	-	-	-
	金額	10,243	1,236	4,301	445	545	-	-	-	-	-
南北水產	物量	-	-	-	873	2,554	2,579	4,837	2,470	3,770	5,205
	金額	-	-	-	2,002	3,532	5,557	2,398	4,510	8,282	14,808
南洋冷凍食品	物量	1,721	914	2,080	634	-	-	212	267	270	323
	金額	5,132	5,073	4,190	819	-	-	384	641	639	954
南洋社	物量	4,084	3,509	3,402	3,763	1,219	1,071	686	705	615	948
	金額	12,942	12,463	8,740	8,897	2,332	1,824	1,531	1,735	1,840	2,966
大林水產	物量	1,353	1,404	1,863	1,127	2,089	550	860	1,935	3,143	6,214
	金額	5,785	3,126	4,628	2,067	4,206	1,678	2,137	6,012	9,827	20,809
大旺水產	物量	1,026	1,432	1,831	1,551	1,632	1,665	800	544	-	-
	金額	2,817	3,727	2,489	3,381	3,073	4,305	1,661	1,668	-	-
大皓遠洋	物量	1,108	2,055	595	968	579	-	-	-	-	-
	金額	2,472	3,170	1,338	1,868	1,258	-	-	-	-	-
德水物產	物量	2,018	1,052	752	865	706	540	340	601	214	-
	金額	3,725	2,015	1,715	1,732	1,453	1,376	830	986	328	-
東亞製粉	物量	-	-	-	-	4988	5,197	4,783	6,361	6,476	6,083
	金額	-	-	-	-	9,230	14,064	7,517	17,395	22,788	23,367
東遠產業	物量	2,555	2,242	2,204	2,062	3,372	2,967	1,837	4,190	7,887	4,334
	金額	6,916	5,151	4,639	5,154	6,706	9,611	5,109	11,125	16,603	15,034
東源水產	物量	1,231	1,298	1,236	200	3,061	1,850	1,721	2,908	3,234	3,671
	金額	3,264	2,026	2,363	470	4,020	3,952	3,638	6,714	8,301	7,464
東源漁業	物量	585	854	861	609	1,061	878	1,281	1,313	1,256	1,197
	金額	1,328	2,147	2,547	2,019	2,220	2,507	2,906	3,427	3,620	4,360
思潮產業	物量	4,650	5,602	5,497	5,466	7,090	7,801	9,150	12,549	13,475	11,179
	金額	12,445	11,311	14,033	15,081	15,835	23,975	22,224	34,837	43,224	38,684
三松產業	物量	1,652	2,447	1,804	1,993	2,004	2,188	2,840	2,861	2,337	2,077
	金額	3,942	5,311	3,357	4,973	3,767	5,774	7,313	6,649	7,261	7,657
世洋水產	物量	1,066	596	1,126	780	555	1,344	1,161	1,061	1,064	835
	金額	2,005	1,813	1,523	1,400	620	2,829	2,014	2,292	3,121	2,866
五洋水產	物量	2,028	2,106	3,727	3,056	3,948	3,568	4,493	5,212	6,946	5,816
	金額	5,521	6,152	7,161	6,028	7,438	9,153	10,291	14,738	24,437	24,316
仁成水產	物量	559	474	1,138	588	931	1,494	1,240	2,108	1,717	1,810
	金額	1,875	1,036	2,148	2,409	1,087	4,586	2,854	5,579	5,474	5,858
拓洋水產	物量	825	430	2,218	763	527	1,213	1,483	1,160	1,613	2,072
	金額	1,854	885	2,163	2,494	1,367	3,543	3,263	3,995	5,494	8,632
太倉水產	物量	2,808	2,321	3,512	3,368	4,402	4,973	3,216	3,427	3,544	3,126
	金額	7,229	5,971	8,941	7,387	7,265	11,778	6,307	8,826	8,923	11,141
(株) 韓獨	物量	2,782	1,997	1,996	786	2,843	1,598	1,476	772	-	-
	金額	8,403	4,648	6,700	1,844	5,618	4,434	3,320	1,291	-	-
韓星企業	物量	1,795	1,000	1,365	835	1,129	567	1,095	746	1,507	547
	金額	3,724	2,384	4,116	1,807	2,326	1,323	1,842	1,429	4,423	1,806
海外產業	物量	1,049	-	1,066	1,478	1,453	718	331	-	-	-
	金額	1,564	-	4,280	3,775	2,643	1,180	957	-	-	-
總輸出	物量	66,825	47,759	58,308	43,577	52,930	47,299	51,827	59,077	68,315	72,618
	金額	149,587	108,855	149,093	119,755	109,232	139,188	122,554	163,162	205,101	252,999
輸出單位	\$/%	2,238	2,279	2,489	2,749	2,064	2,943	2,365	2,762	3,002	3,484

資料：韓國遠洋漁業協會

III. 水産物輸出入構造의 變化

1. 輸出停滯와 輸入增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水産物輸出은 「資源依存型」 성격을 기본으로 행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1986년이후, 총생산물의 감소와 함께 沿近海, 遠洋, 養殖, 輸出量 전부가 감소추세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재 한국의 需給概觀을 살펴보면 1991년의 국내생산량은 약 300만톤정도이다. 그 중 약 60%에 해당하는 약 170만톤이 국내소비(국내생산-수출)로 향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산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28만톤정도가 수출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低下傾向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한편 水産物輸入은 생산량의 약 20%정도이지만 착실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1972년에 21.3Kg, 1985년 37.2Kg, 1991년에는 45.0Kg으로 1972년에 비교하여 약 2배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식품수급표).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水産物 消費構造를 生産物의 利用動向으로 부터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遠洋物을 제외한 1979년의 漁獲量(1,936천 M/T) 중 약 59.4%가 鮮魚用이고, 나머지 약 40.6%가 加工用이었다. 하지만 1984년의 漁獲量(2,252천 M/T)의 약 14.3%가 鮮魚用이고, 약 85.7%가 加工用으로 鮮魚用은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수산물 소비가 종래의 鮮魚中心에서 加工中心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6> 水産物 利用動向 (單位: 千%)

	1979	1981	1984	1987	1990	1991
漁獲物①	1,936	2,270	2,252	2,449	2,350	2,109
鮮魚用	1,150	1,033	889	545	438	301
加工用	786	1,237	1,363	1,904	1,912	1,808
冷凍品	197	281	389	685	593	415
練製品	11	76	180	247	282	311
其他	578	880	794	972	1037	1082
加工比率(%)	40.6	54.5	60.5	77.7	81.4	85.7

資料: 各年 「水産物動向에 관한 年次 報告書」에서 작성.

註: ① 遠洋漁獲物을 제외한, (沿近海+養殖+內水面)의 合計

또한 수산물수입량은 1980년의 15천톤에서 1991년 554천톤으로 약 37배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수용수입은 크게 늘어나, 금액면에서는 1980년의 약 5백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91년에는 약 36천만달러로 약 76배나 증가하였다.

水産物 貿易 構造變化에 관한 一考察

<표 7> 水産物 輸出入額의 推移 (單位: 천달러)

	輸出(A)	輸入(B)	原資材(C)	內需用(D)	C/A	C/B	D/B
1980	682,000	37,213(100)	32,438	4,775	(4.7)	(87.2)	(12.8)
1981	839,000	59,806(160)	55,317	4,489	(6.6)	(92.5)	(7.5)
1982	764,000	58,696(158)	53,304	5,392	(7.0)	(90.8)	(9.2)
1983	740,000	57,492(154)	44,887	12,605	(6.1)	(78.1)	(21.9)
1984	782,000	68,105(183)	60,106	7,999	(7.7)	(88.3)	(11.7)
1985	794,000	91,435(246)	70,079	21,356	(8.8)	(76.6)	(23.4)
1986	1,171,000	118,090(317)	99,470	18,620	(8.5)	(84.2)	(15.8)
1987	1,506,000	214,855(577)	131,082	83,773	(8.7)	(61.0)	(39.0)
1988	1,911,000	291,646(784)	134,909	156,737	(7.1)	(46.3)	(53.7)
1989	1,690,000	321,610(864)	142,909	178,881	(8.5)	(44.4)	(55.6)
1990	1,513,000	368,095(989)	168,623	199,472	(11.2)	(45.8)	(54.2)
1991	1,641,000	576,000(1548)	211,000	365,000	(12.9)	(36.7)	(63.3)

資料: 各年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 報告書」에서 작성.

註: 內需用은 共同事業漁獲物, 合作事業漁獲物, 觀光用食資材, 기타 內需要의 合計임.

이 중에는 1988년 이후부터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J.V.) 수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J.V. 어획물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1991년 현재의 J.V. 어획물은 금액면으로 약 15천 달러로 內需用의 약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주된 수입품목은 냉동 명태, 냉동수리미, 냉동오징어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와같은 수입은 냉동품, 연제품과 같은 가공품의 原料 不足分을 輸入原料로써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공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른 不足分의 補完的인 性格의 輸入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國內活魚消費의 성장에 따라 이미 일본등지로부터 양식어류 등이 상당량 수입되고 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수산물 수입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의 내용보다도 本稿의 목적에 따라 內需用 수입문제는 특히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이것과는 다른 성격의 수입인 「原材料」로서의 수입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기로 한다.

2. 加工物 輸出 原料로서 輸入擴大의 特質

原資材란 가공한 후 재차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로서, 수산물의 原資材 수입의 기본적인 성격은 국내생산물과는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내생산원료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 그러나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輸出加工資本에 따라서는 原資材가 가공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水産物輸入을 原資材와 內需用으로 나누어서, 1980년 이후부터 그 추이를 살펴보면 <표

6) 水産物 原材料의 輸入은 國立水産物檢査所의 水産物檢査告示 第91~1號 「水産物の 外貨獲得用原料輸入推薦 및 事後管理에 관한 要領」(1991년 1월 8일 改正)에 의해 이의 第1條 目的은 水産物の 外貨獲得用 輸入原料에 있어 徹底한 事後管理에 의한 貿易秩序의 確立을 도모함과 生産漁民과 外貨獲得用原料의 輸出入業體를 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말해 生産漁民과 輸出入業體를 별개로 하지 않는 相互依存補完的인 關聯안에 原資材가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산경영론집

7>과 같다. 1980년을 기준으로, 1991년까지의 총수입 증가율은 금액면에서 약 1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자재 수입, 즉 수출용 원료 수입은 1980년에는 총수출액의 4.7%, 총수입액의 87.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1년에는 총수출액의 12.9%, 총수입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은 1980년 중반까지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그이후에는 증가경향을 보이면서 1991년에는 1980년의 6배이상인 약 21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原資材로서 수입되는 품목의 종류 및 수량, 금액에 관해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1990년에는 총 63품목이 原資材로서 수입되었고, 1991년에는 총 59품목이 수입되었다. 이들 중 1991년의 실적을 주요품목의 금액면에서 살펴보면 명태(약 115백만 달러), 오징어(약 23백만 달러), 가자미(약 14백만 달러), 게(약 7백만 달러), 피조개(약 7백만 달러)의 5품목이 전체 원자재 수입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 이외에도 새우, 청어, 대구, 고등어, 바지락, 삼치, 붕장어, 명란 등이 수입되어 일정 가공 후에 다시 수출되고 있다.

이와같은 원자재의 가공수출은 高附加價値를 創出해낸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태의 경우는 수입액에 비해 가공수출액은 약 2배로, 명란은 약 2.5배까지 부가가치비율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는 주요품목의 총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原資材加工 輸出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오징어, 가자미의 경우를 보면 1991년 오징어가 60.5%, 가자미가 6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종래의 “自國生産에 의한 輸出”이라는 형태가 역전된 “原料商材輸入에 의한 加工輸出”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일부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특히 피조개, 바지락, 삼치, 붕장어 등은 종래의 한국연근해 생산물이었으며 수출의 일부 主力品이기도 했다.

<표 8> 主要品目の 原資材로서의 輸入과 加工輸出實績 (單位: %, 천달러)

	1990				1991				原 料 在庫量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명 태	37,690	60,431	34,782	123,032	60,276	114,908	49,378	190,182	5,449
오 징 어	15,091	18,209	4,257	26,264	19,168	22,466	3,302	26,675	4,037
새 우	1,008	7,267	586	8,588	415	2,868	203	3,869	0
가 자 미	5,626	4,975	2,645	7,595	14,165	14,163	5,047	16,099	212
청 어	3,851	7,982	612	9,054	2,600	4,004	422	4,937	0
대 구	2,249	2,871	639	2,200	2,821	3,932	794	3,237	9
계	1,099	3,474	536	3,863	1,850	7,041	1,012	8,217	0
피 조 개	382	6,606	324	6,298	742	7,044	668	9,915	0
갑오징어	242	677	139	861	1,016	3,611	594	4,320	8
바 지 락	773	1,311	591	2,632	1,223	2,167	706	3,425	280
고 등 어	1,454	2,353	1,166	3,045	370	510	274	833	12
삼 치	881	2,571	617	2,431	373	748	246	935	19
붕 장 어	169	358	87	524	359	739	218	1,367	0
명 란	356	704	276	1,265	162	317	101	805	0

資料: 水産廳

註: 1990년에는 總 63品目, 1991년에는 總 59品目이 原資材로서 輸入되었음.

水産物 貿易 構造變化에 관한 一考察

<표 9> 主要品目の 總輸出에 차지하고 있는 原資材 加工 輸出의 比重

	1990			1991		
	原資材(A)	總輸出(B)	A/B	原資材(C)	總輸出(D)	C/D
오징어	26,264	42,434	61.9	26,675	44,119	60.5
가자미	7,595	24,636	30.8	16,099	25,538	63.0
피조개	6,298	81,859	7.7	9,915	85,933	11.5
갑오징어	861	10,818	8.0	4,320	10,478	41.2
바지락	2,632	47,165	5.6	3,425	37,670	9.1
삼치	2,431	30,080	8.1	935	29,056	3.2
붕장어	524	69,765	0.8	1,367	69,534	2.0
명란	1,265	26,544	4.8	805	31,411	2.6

資料：水産廳 貿易課 資料，各年「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에서 작성.

註：① 原資材의 實績은 加工後，재차 輸出된 輸出金額임.

② 오징어는 調味 오징어에 대한 原資材 오징어 加工 輸出比率임.

調味外 오징어 輸出額은，1990年 約10백만달러，1991年 約 6백만달러임.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서는 이들 품목 역시 타국으로부터 수입되어 가공후 재차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의 주요수입선은 중국,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성게, 피조개, 새조개, 바지락, 삼치, 갑오징어 등이 수입되고, 북미, 러시아(구 소련)로부터는 명태, 가자미 등이,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새우(주로 일본 수피의 冷凍 刺身用) 등이 수입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原料商材輸入에 의한 附加價值型 輸出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原資材 輸入의 기본적인 성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自國生産만으로는 부족한 분, 혹은 수출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성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이미 역의 성격을 지닌 원자재에 의존하는 성격이 구조화된 수산물 수출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수산물 무역의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水産資本 再編의 諸形態

종래의 水産物 輸出은 自國生産品을 原形 그대로, 혹은 國內加工施設에서 일정의 가공후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성장기에 있어서도 수산물 수출은 外貨獲得 산업으로서 일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自國 主要 資源의 枯渴, 海外漁場의 縮小, 國內 魚價의 高騰(後掲 <그림 2> 참조) 등, 자국에 의한 생산은 低下를 계속하고 있는 현재, 종래의 水産物輸出을 담당해온 자본은 이상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검토한 수산물무역을 둘러싼 구조변화라고 하는 국면에 있어 수산자본의 對應形態 및 이들의 再編 諸形態를 고찰하기로 한다.

1) 水産資本의 諸動向에 관한 事例

우선 사례연구로서 수산물 輸出關聯業體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표 10>은 主要水産業體의 수출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業體의 수출액이 한국의 총 수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90년에는 약 13%, 1991년에는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0해리의 정착이후 각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로 부터의 외국선 배제정책이 고조에 달하였던 1987년 전후에 있어 각 業體의 수출실적과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A社는 1975년에서 1988년까지 일방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1989년 이후에는 감소했다가 재차 증가하고 있다. B社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C, D社는 감소경향을 나타내며, 특히 C社의 감소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0> 主要 水産 企業의 輸出推移 (單位: 백만달러)

年度	總輸出(1)	A社	B社	C社	D社
1975	398	4.5	—	—	—
1976	329	6.4	—	—	—
1977	706	7.8	—	—	—
1978	647	11.2	—	—	—
1979	801	15.8	—	—	—
1980	682	9.9	—	—	—
1981	839	8.7	—	—	—
1982	764	10.9	11.8	33.6	—
1983	740	11.9	18.6	31.1	—
1984	782	10.5	18.8	36.3	—
1985	794	14.8	14.7	35.3	—
1986	1,171	16.8	20.8	59.9	—
1987	1,505	17.7	22.7	67.2	67.0
1988	1,911	17.9	27.6	67.7	76.0
1989	1,690	10.1	19.2	60.9	90.0
1990	1,513	14.8	21.5	72.0	87.0
1991	(p)1,600	16.9	31.7	43.0	85.0

註: 資料는 各 企業의 內部資料에서 작성.

① 總輸出은 韓國의 水産物 輸出額이며, 各年 「水産年鑑」에서 작성, 漁網의 輸出은 제외.

이와 같은 움직임에는 각기업마다 어떤 구조적인 特質과 再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하에서 각사의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A社의 經營構造를 개관해보면 크게 自社에 의한 漁業生産과 加工生産으로 나눌 수 있다. 漁業生産은 연근해 중심의 선망어업과 저인망 어업, 원양 트롤, 원양참치연승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그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고, 대부분은 가공 혹은 원형으로서 수출되고 있다. 漁業生産構造面에서 알 수 있듯이 연근해의 자원고갈, 원양에서의 국제어업관계의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이 관련수출구조에 강하게 비치고 있음을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1>은 A사의 수출구조를 1989년과 1991년을 비교한 것이다. 1991년의 수출액은 1987년과 별도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輸出品原料構成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읽을 수 있다. 1989년의 수출품 원료량의 약 80% 이상이 연근해(34.7

7) 本稿에서 事例로 다루고 있는 業體名은 企業의 內部資料關係로 익명으로 하기로 하며 이를 A, B, C, D社로 부르기로 한다.

水産物 貿易 構造變化에 관한 一考察

%), 원양물(50.7%) 중심이었고, 원자재는 겨우 0.3%에 지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어업생산기반의 수출구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91년의 실적은 약 50%전후(量, 金額)를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고, 연근해(10.9%)와 원양물(32.8%)의 비율은 대폭 감소되었다. 다시 말해 A社에 있어 1989년 이후의 수출확대는 연근해와 원양물의 수출원료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가 아닌, 그것의 補完的, 代替的인 성격의 원자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자재에 의한 수출가공품은 오징어, 호키(Hoki), 새우 등의 후라이(fry)와 같은 調理冷凍食品, 갑오징어, 生食刺身用 새우 등의 冷凍刺身 등이다. 또한 이들 가공품의 대부분은 일본의 특정수퍼에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종래의 자사어업생산물 내지 연근해의 생산물과는 달리 原資材輸入 國內自社加工 輸出(주로, 일본의 수퍼)이라는 형태로 수퍼의 素材加工에 대응 가능한 多品目加工戰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B社는 앞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1988년의 수출금액 27.6백만달러에서 1989년에는 19.2백만 달러로 감소 했다가, 1990년부터 회복경향을 보이면서 1991년에는 31.7백만달러까지 증가하였다.

<표 11> A社의 輸出品은 原料別 比重

分 類	1987		1991	
	數量(kg)	金額(\$)	數量(kg)	金額(\$)
原資材	9,652 (0.3)	133,226 (0.8)	1,497,257 (47.3)	9,069,226 (53.4)
沿岸物	1,498,345 (34.7)	8,495,372 (48.0)	343,589 (10.9)	2,707,149 (16.0)
遠洋物	2,192,455 (50.7)	5,511,553 (31.1)	1,037,254 (32.8)	3,750,469 (22.1)
代 行 品	528,128 (12.2)	2,944,518 (16.7)	265,614 (8.4)	1,404,907 (8.3)
其 他	90,241 (2.1)	596,479 (3.4)	19,175 (0.6)	27,478 (0.2)
合 計	4,318,821 (100.0%)	17,681,148 (100.0%)	3,162,889 (100.0%)	16,959,229 (100.0%)

註: 資料는 企業의 內部資料에서 작성.

<표 12>는 B社의 수출품 원료별 추이이다. 회복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1990년부터는 수량·금액면에서 많지는 않지만 원자재를 수입가공하고 있다. 또한 가공품의 금액면에서의 증가는 현저하여 1989년의 2,365천 달러에서 1991년에는 8,059천달러로 약 3.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B社의 회복확대에는 어떠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12> B(社)의 輸出品 原料別 推移 (單位: %, 千달러)

	1989		1990		1991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原資材	0	0	370	751	523	1,234
참치加工	930	6,441	1,062	5,385	1,182	8,912
遠洋物(1)	-	10,403	-	11,460	-	13,498
加工品(2)	290	2,365	1,205	3,591	2,715	8,059
代 行 品	0	0	197	287	0	0

註: 資料는 企業의 內部 資料에서 작성.

B社의 構造變化에 關係 概觀하면, 크게 自社の 漁業生産과 加工生産, 海外의 JV漁業과 合併加工生産으로 나눌 수 있다. 自社에 의한 漁業生産은 遠洋트롤, 참치연승, 오징어유자망의 遠洋生産이 중심이고, 加工 역시 기본적으로 自社에 의한 生産物을 加工하는 성격이다. 또한 國際漁業關係의 變化등에 대한 대응의 一環으로서, 1991년에 뉴질랜드에 진출하여 호키(Hoki) 漁獲을 중심으로 하는 트롤漁業에 공동출자금의 75%를 投資하였다. 이 海外漁業投資는 어디까지나 自社加工에 필요한 原料確保의 보완적인 성격이고 原魚販賣를 위한 것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이 기업은 自社漁業生産을 기반으로 하면서 加工原料의 장기안정적인 確保의 성격으로 海外漁業投資를 행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加工原料 不足分은 原資材로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기적인 기업의 加工부문 확대전략으로서 合併事業을 시작하여, 한국측의 B社가 25%, 중국측이 50%, 일본측이 25%의 出資比率로 海外直接投資를 행하였다. 노동력은 중국측이 제품기술은 한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형태이다(이미 중국으로 부터 30명이 한국의 B기업에서 技術研修를 받고있다). 原料로서 새우, 굴, 조기, 삼치 등의 수산물은 중국현지에서 調達하고, 후라이(fry)類 原料인 빵가루등은 한국에서 가져가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현지생산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B社의 漁獲에 의한 북양산각시자미(Yellowfin Sole)와 같은 遠洋物도 직접 중국에 가져가 1차필렛加工할 예정이다. 生産된 加工品은 주로 일본에 수출되나, 제품에 따라서는 한국, 미국등지에도 판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결국 이 기업의 現段階에 있어서의 海外加工投資는 현지의 자원과 노동력을 함께 추구한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이며, 노동력만을 추구하는 성격이 아님이 일반 제조업과 다른 特質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C社의 경영구조를 漁業生産과 加工生産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漁業部門은 북양트롤,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유자망등이며, 加工生産은 연제품, 어란, 조미오징어, 참치통조림, 냉동식품등 폭넓은 加工生産을 행하고 있다. <표 13>은 C社의 총판매실적에 차지하는 수출과 국내판매의 推移를 나타낸 것이다. 1982년이후부터 전체 매출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 있는 것은 총매출액에 있어서 1988년의 수출과 국내판매의 位相轉換이다. 수출증가보다는 국내판매의 신장이 현저해 1982년에 비해 1990년에는 약 9배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경영의 주력인 加工部門의 확대전개책의 一環으로서 海外漁業投資를 행하여, 이미 1986년에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명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수리미原料生産의 工母船에 50%投資를 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아르헨티나에 工母船(49%投資)을, 1992년에 들어와서는 러시아에 진출(51%投資)도 도모하고 있다. 이 업체의 海外漁業投資는 기본적으로 加工原料의 확보이

8) 水産物 加工企業의 國際化등에 關係 參考資料中, 河種郁, 朴泳炳, 魚允洋 (1991, 12)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기업의 국제화 전략" 수산경영론집, Vol. XXII, No. 2, p. 19-49, 鄭賢守·河鐘郁·金基洙(1991, 6)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의 決定要因에 關係 研究" 수산경영론집, Vol. XXII, No. 1 p. 77-96에서 흥미있는 報告를 하고 있다. 이는 水産企業을 對象으로 說問紙調査分析해 주로 1980년대 海外漁業投資의 決定要因을 탐색 시도하고 있으며, 주 投資目的을 漁場確保를 위함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報告는 어느정도 당연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각 업체별의 구체적인 投資性格에 關係 언급은 되어있지 않지만 1980年代의 海外漁業投資性格이 200해리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것임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C社の 輸出과 國內販賣推移 (單位: 천달러)

	1982	1984	1986	1987	1988	1989	1990
總賣上額	47,789	65,558	96,205	121,739	152,983	156,489	198,087
輸出販賣	33,558	36,279	59,827	67,169	67,686	60,868	72,000
참치	6,028	9,153	14,738	24,437	24,316	-	-
國內販賣	13,731	29,279	36,378	54,570	85,297	95,621	126,087

註: 資料는 企業의 內部 資料에서 작성.

① 참치(冷凍) 輸出額은 遠洋漁業協會의 資料에서 작성.

지만, 종래와 달리 “內需用에의 轉換”을 도모한다는 성격을 강하게 지닌 것이 그 特質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의 “自社船漁獲物 國內加工 輸出” 구조에서 벗어나 “海外漁業投資進出 國內加工 內需用” 중심구조로의 전계단계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네째로 D社는 遠洋트를, 오징어유자망, 참치연승, 연근해의 漁業生産과 필렛, 어란, 연제품등의 加工生産, 양식, 소비지어시장 경영 등 폭넓은 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 기업은 총매상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⁹⁾이며, 수출은 1989년의 약 9천달러를 최고로 1990년, 1991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 참조>. 특히 참치연승선을 24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본시장으로의 수출 주력품이었다. 그러나 참치生産의 低迷, 일본국내참치가격의 상승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 내지는 하락함으로서 수출이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加工原料에 관해서는 어느정도의 고정된 가격인 원자재의 수입에 의한 加工生産보다는, 장기적으로 확실한 原料의 확보와 原料가격의 自社조절이 가능한 漁業부문으로의 投資확대(현재, 73척보유)를 중시해왔다. 예를들어 참치이외의 遠洋船(26척)에 의해 각시가자미(Yellow Sole), 명태, 호키(Hoki), 메르루사(Hake), 오징어 등, 自社加工品の 原料를 漁獲하고 있고, 또한 原料안정확보를 위해 새로운 海外漁業投資도 도모하고 있다. 1988년에는 미국의 현지법인에서 工母船에 100%投資를 하였고, 1990년에는 아르헨티나에 오징어채낚기 3척의 漁業投資(40%投資)를 하였다. 물론 각시가자미(Yellow Sole)나 명태와 같은 原料는 원자재로서도 수입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自社生産不足分の 보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生産된 加工製品은 국내판매이외에 일본, 미국, 유럽등지에도 수출되고 있고, 특히 加工品輸出에 있어서 수리미를 原料로 한 연제품 등은 미국, 유럽등 일본이외의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또한 필렛의 경우도 1차필렛은 미국수출이 많고, 빵가루를 묻힌 2차필렛은 일본수출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수출시장가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시장다양화도 도모하고 있다. 이와같이 제품에 따른 시장다양화의 전개는 기본적으로는 原料의 自社漁業生産에 따른 확보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自社漁業生産의 확대전개노력에 의한 原料調達은 世界原料 시세의 영향을 직접 내지 강하게 받지 않고, 오히려 시세를 고려하면서 판매가능한 판매력을 가질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같은 加工製品의 판매가격설정력을 自社가 취

9) D社の 총매상금액과 輸出금액의 대비가 가능한 자료와 1986년~1989년의 자료로 이 기간의 평균이 약 60%이다. 총매상금과 輸出금액순으로 보면 1986년에는 113,287천달러와 59,189천달러, 1987년은 115,890천달러와 67,578천달러, 1988년은 130,579천달러와 76,460천달러 1989년에는 147,059천달러와 90,000천달러이다.

고 있는 배경을 기초로 特定輸入資本과의 主從關係 없이, 自社獨단의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水産資本의 諸形態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水産物貿易에 있어 원자재수입원료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는 資本, 原料確保를 위한 海外進出등의 대응을 보이고 있는 자본등 여러가지 형태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자재수입원료로의 대응을 보이고 있는 곳은 규모가 비교적 중간정도인 中小資本을 中心으로한 水産物輸出加工業體로서, 輸入先 (주로, 일본)과의 일정 去來關係를 맺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원자재의 성격은 품목에 따라서는 국내生産물의 보완적인 성격을 벗어나 이미 加工輸出品의 基礎原料로서 위치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漁業부문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수산자본에 있어서의 원자재는, 自社漁業生産의 보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규모가 큰 수산자본들은 장기적으로 국내수요에의 전환을 위해 漁業, 加工부문에 投資를 도모하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원자재는 수출중심의 시기에서부터 국내소비중심으로 전환하는 시

<표 14> 水産業의 海外投資狀況 (1992年 9月 現在)

國 別	企 業	業 種	投資狀況	投資年度
美國	五洋水産	工 母 船	50%投資	1986
	大林水産	工 母 船	100%	1988
	東遠産業	工 母 船	10%	1990
	三湖物産	工 母 船	33%	1989
		工 母 船	50%	1990
		트 룰	49%	1990
	以外2社			
中國	韓斗水産	트 룰	50%	1990
	帝元水産	트 룰	99%	1989
	大永漁業	트 룰	99%	1988
	金龍水産	赤貝養殖	50%	1991
	北洋水産	定置網		
	以外3社	전복養殖	50%	1992
러시아	五洋水産	延 繩	51%	1992
	東遠産業	延 繩	50%	1992
	東三水産	트 룰	50%	1992
아르헨티나	三湖物産	工 母 船	100%	1992
	五洋水産	工 母 船	49%	1991
	思潮産業	채 낚 기	90%	1991
	朝恩水産	트 룰	90%	1992
	以外24社			
필리핀	4社	새우養殖		1991
뉴질랜드	2社	트 룰		1991
以外6개국	8社			

資料 : 水産廳

기의 과도기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원자재의 수입은 ① 原料調達面에서의 안정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의 計劃加工生産.輸出의 가능성이 보이고, ② 더우기 원자재의 가격이 한국 國內生産物보다 低價이면서, 국제 加工原料 시세가 일정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③ 한국 특유의 무역제도에 따른 잇점이 있는 이상, 원자재수입원료의 이용은 앞으로 당분간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海外로의 水産關聯直接投資는 1980년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4>는 현재 水産關聯 海外投資狀況을 나타낸 것이다. 이미 설명한 4개社를 포함해 각국에 漁業投資를 중심으로 양식 등의 投資도 행해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海外진출은 그 投資동기를 原料확보에 두고 있으며 현단계의 성격은 輸出加工原料의 확보와 늘어나고 있는 국내소비용의 原料確保라는 두가지 측면을 지닌 海外投資이다. 이상과 같이 수산물무역에 있어서도 資本輸出과 技術輸出, 輸出原料商材의 輸入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국내소비를 위해 국내자본이 독단적으로 加工部門의 海外進出에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일본-제3국(예를 들면, 중국) 혹은 제4개국간의 무역과 같은 성격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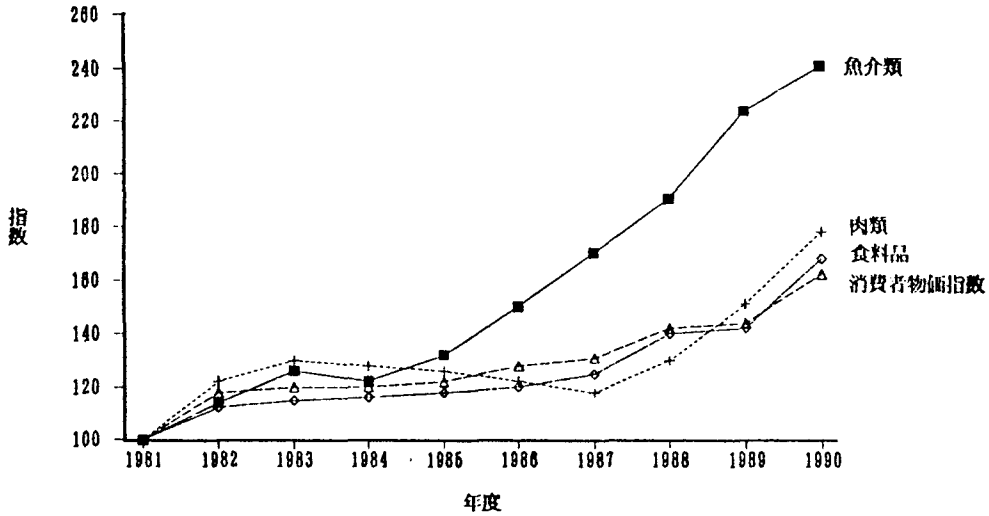
한편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기로 한다.

앞의 <표11>을 다시 보면 代用品의 推移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전부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現狀의 一側面으로 생각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代用品이란 自社製品의 加工이 아닌 他社로부터의 委託에 의한 加工實績이다. 韓國의 水産物 輸出이 최고에 달하였던 1987년과 1989년, 그 기간중의 1987년 이 회사의 代用品의 加工 즉 委託加工은 數量에서 12.2%, 金額에서 16.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韓國 水産物輸出이 1988년 이후 減少를 계속하는 가운데 1991년 이 회사의 代用品實績은 數量·金額에서 약 8%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988년까지 水産物輸出總量의 絶對量이 増加함에 따라 多數出現하였던 水産物 輸出關聯業體가 그 이후 縮小, 倒産한것을 일부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종래의 水産物 輸出資本의 대부분은 「自國生産原料에 依存」해 왔고 그 태반이 加工施設다운 加工處理場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 소위 말해 잡히면 팔고 物量이 있으면 輸出하는 형태로 水産物輸出을 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풍부한 資源, 내지는 國內外 消費格差를 전제로 성립한 것으로 이같은 前提基盤이 惡化되기 시작하여 표면화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縮小再篇의 길을 걸을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 실례로서 <그림2>를 보면 一般消費者 物價上昇보다 魚介類의 消費者 物價上昇이 2배 이상임을 볼 때, 종래의 水産物貿易基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水産資本의 現在의 動向과 特質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으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諸形態로 나눌 수 있다.

I. 「自國生産原料依存型」



<그림 2> 消費者物價指數의推移

II. 「輸出加工品을 위한 原料輸入依存型」

III. 「原料와 勞動力 指向의 海外進出型」

과 같은 3가지 類型化가 가능할 것이다. 이 3가지 타입은 당분간 混在하면서 水産物을 둘러싼 貿易構造는 再編成될 것으로 생각된다.

III. 現段階에 있어 水産物輸出構造의 性格과 展望

水産物 輸出構造의 變化와 資本의 再編成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資源減少 등에 따른 金후 水産物 輸出의 縮小再編이라는 一般論的인 발상에서가 아니라 이같은 一般論안에서 앞으로 어떠한 形態의 再編成이 進行될 것이며 그러한 움직임이 水産經濟, 나아가서는 巨視經濟에 어떤 의미부여가 가능한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水産物을 둘러싸고 있는 漁業生産, 流通, 消費, 貿易 등이 1次産業이 가지고 있는 특질인 “資源”이라는 범주 안에서 성립되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시대를 초월한 原則이자 限界속에서 水産物은 전개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運動法則안에서 일어나는 諸條件의 經過에 注目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諸變化를 一考하기에 必要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水産物 貿易構造의 展開過程과 現段階의 性格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표15>와 같이 개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15>의 자세한 설명은 다른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本稿의 目的과의 關聯에서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資本에 관해서 一言하고자 한다.

韓國經濟는 1970年代의 高度成長期를 통해 상당한 發展을 해 왔다. 이러한 經濟成長의 內面에는 外資導入에 의한 擴張主義的인 經濟運營의 性格이 內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異論은

水産物 貿易 構造變化에 관한 一考察

<표 15> 水産物 貿易要因의 構造變化

	70年代	80年代	90年現在
原料 (資料)	沿近海資源中心 遠洋原料의 增加	沿·近·遠洋·養殖 資源의 過大 利用	輸出原料不足 原料材導入
勞動力	良質, 싼賃金	勞賃 高騰	高賃勞動力 勞動力不足
技術	導入·基盤確立	技術全般의 成長 海上生産技術移轉問題의 台頭	加工品技術의 成熟 海上生産技術의 不移轉問題
市場	日本의 活生鮮 美國의 缶詰原料	日本 水産物 市場中心	生鮮·冷凍市場(日) 歐美의 연제품 市場
貿易 環境	外貨獲得産業으로서 優遇政策	圓高와 won低 石油價格의 下落 國際金利低下	他國의 競爭力強化 won·國內消費의 高 國內生産要素集積
資本	外貨導入 (日本資本)	輸出增大에 따른 國內資本의 成長	國內資本의 自立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970年代 初期를 중심으로 한 遠洋漁業 역시 外資導入에 의해 그 基盤을 확립하면서 發展, 擴大되었다. 이와 함께 水産業의 發展과 水産物 貿易擴大 등으로 國內水産資本은 成長을 계속하여 1990年 現在는 自國資本에 의한 海外投資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自立段階에 들어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같은 國內資本의 自立이라는 의미의 延長線위에서, 종래의 「自國 生産 原料依存型」性格의 輸出構造는 縮小될 것이며 (물론, 水産物 貿易을 둘러싼 環境條件의 變化라는 사실을 엄연히 내재하고 있다.), 附加價値 추구를 위한 「原材料 導入과 海外漁業投資」는 (水産物 輸出과 國內消費市場의 位相轉換여하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할지언정) 계속 전개되리라 생각된다.